

TRANS- HUMANITIES

Title : 전쟁 포로의 소설적 형상화: 〈劍僧傳〉
Fictional Depic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Sword-Monk Story (劍僧傳)

Author(s) : 정하영 (JUNG Ha-Yo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4 No. 3 (2011), pp. 5-33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전쟁 포로의 소설적 형상화 - 〈劍僧傳〉

정하영

1. 戰爭이 만든 異邦人 : 전쟁 포로

한 자리에 머물며 폐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중세 사회에서 이방인은 화제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었다. 서사문학의 역사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이방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나며, 때로는 바다를 건너와서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는 이방인이다. 신화시대를 지나 역사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국가 체제가 공고해지고 국경의 벽이 높아지면서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출현은 힘들게 되지만 그 경로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이주, 혼인, 여행, 탐험, 포교(布教), 상업, 유배, 표류, 전쟁, 망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계를 넘나드는 이방인이 이어져 나온다.

전쟁은 이방인을 양산하는 특수한 계기가 된다. 집단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국가 간의 전쟁은 참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국가의 백성들에게 충격적 이방 체험을 하게 한다. 파괴와 살육을 동반하는 전쟁에

정하영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지만 인류 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면도 적지 않다.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물어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문명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역사에서 전쟁은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삼국시대 통일전쟁에서 시작된 외국과의 전쟁은 고려 항몽 전쟁과 조선의 임·병 양란을 거쳐 근래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방의 체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역사 발전의 중대한 전기(轉機)가 되었다.

문학과 전쟁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전쟁을 주제로 하는 전쟁문학(戰爭文學 war literature)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같은 고대 서사시에서부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에 이르기까지 세계문학사의 큰 흐름을 이룬다.

한국문학의 경우에도 전쟁은 고전(古典)과 현대(現代)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다. 수로(首露)와 탈해(脫解)의 쟁투를 그린 〈가락국기〉, 주몽의 건국 과정을 그린 〈동명왕편(東明王篇)〉 등은 신화시대의 전쟁문학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임진록〉,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임경업전〉, 〈강도몽유록〉 등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전쟁문학이며,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최인훈의 〈광장〉, 박경리의 〈시장(市場)과 전장(戰場)〉, 이병주의 〈지리산〉 등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걸작들이다.

전쟁이 낳은 이방인 가운데 특이한 인물은 포로이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조선 병사와 백성들이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의 포로 체험은 여러 형태의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전쟁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노인(魯認)의 〈금계일기(錦溪日記)〉, 강항(姜沆)의 〈간양록(看羊錄)〉, 정희득(鄭希得)의 〈월봉해

상록(月峰海上錄) 등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포로들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고, <심양일기(瀋陽日記)>와 <심양장계(瀋陽狀啓)> 등은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 일행의 포로 생활을 기록한 자료이다. 포로 당사자들의 기록 이외에 목격자들이 전하는 기록도 있다. 황신(黃愼)의 <동사록(東槎錄)>, 경섬(慶漚)의 <해사록(海槎錄)>, 오윤겸의 <동사상일록(東槎上日錄)> 등은 전쟁 뒤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신들이 목격한 조선 포로들의 생활상을 전하는 기록이다. 임·병 양란 당시 포로 생활의 체험은 소설로 창작되기도 했는데 조위한의 <최척전>, 홍세태의 <김영철전>, 권척의 <강로전>, 이수광의 <조완벽전> 채제공의 <백의사전>과 <신기금전> 등이 대표적 작품이다.

적국에 끌려간 조선의 포로와는 반대로 조선에 포로로 잡힌 외국군도 없지 않았다. 당시 전쟁의 형편상 외국군 포로는 숫자가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대부분 현장에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¹⁾ 그들에 남긴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포로로 잡히기 전에 스스로 투항하여 조선에 정착한 외국군도 적지않게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조선에 투항한 일본군의 숫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투항자들이 남긴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서 당시 외국인 포로의 실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 일본 패잔병과 조선 검객의 운명적 만남

한국소설사에서 일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1) 임진왜란 당시에 잡힌 일본군 포로는 현장에서 처형되는 일이 많았으며, 일본군에 잡힌 포로도 현장에서 처형되는 것이 상례였고 특수한 경우에는 일본으로 끌려갔다.(『난실만필』 <검기>에는 일본군이 조선인 포로들을 죽결 처분하는 장면이 나온다.)

런 상황에서 일본 패잔병의 전쟁 체험을 다룬 <검승전(劍僧傳)>은 특이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영·정조 때의 문인 신광수(申光洙, 1712-1775)가 지은 전(傳) 형식의 한문소설이다. 임진왜란 때 침략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일본 패잔병의 회고담을 전달하는 액자 형식의 이 작품은 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과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이야기한다.

① 임진왜란이 끝난 지 50여 년이 지났을 때였다. 젊은 선비가 오대산 어느 절에서 과거(科擧)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절에 사는 노승이 선비의 곁에 앉아서 글 읽는 소리를 즐겨 듣곤 하다가 서로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선비는 노승이 자기 스승의 제사를 지내면서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사연을 궁금해 하는 선비에게 노승은 자신의 지나온 내력을 들려준다.

② 노승(劍僧)은 조선인이 아니라 임진란 때 침략군의 일원으로 조선에 들어왔던 일본 병사였다. 그는 조선 공격을 선도하는 가토 기요마사(家藤清正) 군의 선발대로 뽑혔다.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로 진격하는 길에 검술에 뛰어난 노인(劍師)을 만났다. 검사는 혼자 힘으로 일본인 선발대 3천 명을 다 죽이고 두 명만을 살려 두었다.

검사는 두 사람을 제자로 삼아 산중을 떠돌면서 그들에게 검술을 가르쳤다. 그들은 팔도 명산을 두루 유람하면서 검술을 시험하고 울적한 심회를 분출하면서 10년을 지냈다. 어느 날 함께 나들이를 나가려 할 때 한 명의 일본인 제자(劍倭)는 검사를 칼로 내리쳐 살해하고 검승에게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검승은 그의 제안을 뿌리치고 즉시 동료 왜인의 목을 베어 스승의 원수를 갚았다.

스승과 동료를 잃은 검승은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동해 바닷가로 나가 몸을 던졌으나 파도에 밀려 살아난다. 검승은 죽을 생각을

접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어 신분을 숨기고 지낸 지 40년이 되었다. 해마다 스승의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면서 목이 잠길 때까지 곡을 하였다. 검승은 같이 지내는 승려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나온 내력을 선비에게 털어놓고 자취를 감추고 만다.

- ③ 작자는 이렇게 논평한다. 검사(劍師)는 신이(神異)한 재주를 가지 고서도 임진란에 참여하지 않고 은둔자의 삶을 택했다. 임진란은 천운(天運)이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참여해서 공을 세운다 해도 남이나 감덕령처럼 화를 면치 못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검사(劍師)가 왜군 3천 명을 다 죽이면서 두 사람만을 살려 검술을 전수해 주었다가 그 중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10년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을 보면 검사(劍師)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는 밝았으나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어두웠다 할 수 있다.

검승(劍僧)은 오랑캐이지만 멋있는 사람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작품의 본문을 이끌어내는 소개의 말이고, 둘째 부분은 검승의 체험담이며, 셋째 부분은 작자의 논평이다.

이 작품의 소재인 검승의 체험담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검승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군대 선발대의 일원으로 왔던 인물이다.

저는 조선인이 아닙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북으로 쳐들어 올 때에 왜인 중에서 칼 잘 쓰는 자로서 나이 스무 살 이하 오만 명 중에서 삼만 명을 고르고, 삼만 명 중에서 만 명을 고르고, 만 명 중에서 삼천 명을 골라서 특별 부대를 만들어서 앞세웠지요. 그들은 백보를

www.kci.go.kr

날아서 사람을 베기도 하며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곤 했는데 저
 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 아홉 고을을 거쳐 북으로
 철령을 넘어 함경남도를 짓밟고 깊이 육진까지 들어갔습니다.(老僧
 非朝鮮人也 清正之北入也 簡倭能劒者 二十以下 五萬得三萬 三萬
 得萬 萬得三千 別部在軍前 能百步飛繫人 搏空鳥 老僧亦其一也 并
 海九郡 而北踰鐵嶺 躡關南 深入六鎮)

검승의 진술은 임진왜란 때 가토 군대의 선봉장으로 조선에 왔다가
 투항한 사야가(沙也加)²⁾의 문집 내용과 부합되는 면이 보인다.

공의 나이 22세(1592) 4월 13일. 공은 일본군 우선봉장으로 3천
 병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부산에 상륙했다.(公二十二歲 夏四月
 十三日 公以日本右先鋒將 領兵三千 渡海下陸於釜山). (金忠善, 『慕
 夏堂文集』, 「慕夏堂年譜」)

사야가의 당시 나이가 22세였으며, 선발대의 숫자가 3천 명이라는 점
 이 검승의 진술과 부합한다. 검승의 부대가 바닷가를 따라 철령을 넘어
 함경도 육진까지 들어갔다고 한 것도 당시 가토 군의 행로와 대체로 일
 치한다.³⁾ 그러나 작품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승
 의 체험이 소설로 정착되기까지는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며,⁴⁾ 이

2) 사야가(沙也可, 1571-1642)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좌선봉
 장으로 내침하였으나 조선의 문물이 뛰어난을 흠모하여 귀순하였다. 전쟁 중에
 세운 공으로 김씨 사성(賜姓)과 충선(忠善)이란 이름을 하사받았고, 가선대부를
 제수받았으며,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에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

3)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평안도를 향해 진군했고 가토 기요마
 사(加藤清正)는 경상도와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진군했다.

4) 검승이 노인 검객(劒師)을 만나 함께 생활한 것은 1592년부터 10년 간이고,
 자신의 체험을 선비에게 들려준 것은 약 50년 뒤인 1650년경의 일이다. 작자인
 신광수(1712-1775)가 이 작품을 지은 시기는 대략 1730년 이후의 일이므로 이
 야기의 전승 기간은 100년이 넘는다.

기간 동안에 내용상의 과장과 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같은 사건은 소재로 하면서 제목을 달리한 작품도 나왔는데 『청구야담』에 수록된 〈孟監司東岳聞奇事〉이 그것이다.

① 감사 맹주서가 젊었을 때 금강산 어느 암자에서 100세가 넘는 노승을 만났다. 맹감사는 그 암자에 묵으면서 노승이 스승의 제사를 지내면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자신의 지나온 내력을 이야기해 주었다.

② 그는 조선사람이 아니고 일본 군인이었다. 일본에서는 지혜와 용맹이 빼어난 여덟 사람을 뽑아 조선에 보내며 각기 팔도를 맡아서 조선의 지형을 염탐하고 지모를 갖춘 조선인들을 모두 죽이고 오라고 했다. 그들은 조선말을 익히고 승려로 변장하여 동태로 나왔다. 여덟 사람은 팔도로 흩어지기 이전에 금강산에 들어가 기도를 올리기로 하고 길을 떠났다. 회양 땅 산골짜기에서 나막신을 신고 황소를 타고 가는 선비를 만나게 되었다. 허기에 지친 일본인들은 노인을 죽이고 소를 잡아 먹기로 하고 선비에게 달려들었으나 일행 중 다섯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세 사람은 항복하여 죽음을 면했다.

선비는 그들의 다짐을 받고 제자를 삼아 검술을 가르쳐 주었다. 왜군이 쳐들어 올 때 앞장서서 막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선비로부터 검술을 전수받고 났을 때 왜인들 중 두 사람이 동료들의 원수를 갚는다고 잡지는 선비를 찢어 죽였다. 노승은 동료 두 사람을 크게 꾸짖고 그 자리에서 모두 죽였다. 그리고는 중이 되어 이 암자에서 스승의 덕을 기리며 혼자 살고 있었다.

③ 맹감사는 노승의 인품을 칭송하면서 그의 검술을 구경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노승은 며칠 동안 쇠진한 기운을 회복한 뒤에 자신이 전수받은 검술을 펼쳐 보였다. 노승은 죽음을 앞두고 보니 자신의

지나온 삶을 묻어둘 수 없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했다.

〈맹감사〉의 핵심 내용은 〈검승전〉과 유사하다. 일본 침략군의 선발대가 조선 검사(劔師)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세 사람이 제자가 되어 검술을 전수받았다. 그 중 두 사람이 합세하여 스승을 죽이고 다른 사람은 동료로 죽여 스승의 원수를 갚고 승려가 되어 스승의 덕을 추모한다는 것이다. 〈맹감사〉는 〈검승전〉에 비해 시기적으로 한 세기 이상 늦게 나온 작품으로서 세부적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이고, 검승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물이 맹주서로 밝혀져 있으며, 작가의 논평 대신에 검객설화에 흔히 보이는 ‘검술 시범’을 삽입하여⁵⁾ 오락적 성격을 높이고 있다. 이로써 볼 때 〈맹감사〉는 〈검승전〉의 후대적 변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추론된다.

3. 고뇌와 갈등의 비극적 결말

1) 작중인물의 내적 갈등

〈검승전〉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전쟁문학이지만 서술 방식이나 시각은 통속적 전쟁문학과는 다르다. 전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쟁의 와중에서 만나게 되는 세 인물의 기구한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승전〉의 인물 구성은 극히 단조롭지만 내면 상으로는 복잡하게

5) 〈맹감사〉에 나오는 검승의 검술 시범은 『난실만필』의 〈검기(劔技)〉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다. 임진왜란 때 조선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다 귀환한 종실자(宗室子)가 일본인 스승에게서 배운 검술을 그의 친지 앞에서 시범해 보이는 ‘검술 시범’은 검객설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맹감사〉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얽혀 있다. 스승과 제자들, 제자와 제자 사이에는 적대관계와 유대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각자는 자신 안에 용해되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를 안고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털어내지 못한다. 검사(劔師), 검승(劔僧), 검왜(劔倭) 이들 세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불안한 삼각구도는 끝내 풀리지 않고 파국으로 마감하게 된다.

검사(劔師)는 〈검승전〉의 실질적 중심인물이다. 표제로 내세운 인물은 검승(劔僧)이지만 작자가 관심을 가진 실질적 중심인물은 검사(劔師)이다. 작품 속에서 그는 의문 투성이의 인물이다. 신원(身元)과 정체(正體)가 분명치 않고, 그가 보여주는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 왜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아야 하고, 뛰어난 검술(劔術)을 가지고서도 왜 나라의 위급(危急)을 구하러 나오지 않았는가? 왜 일본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그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으며,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본군을 모조리 죽이면서 왜 두 사람만은 살려두었는가? 적의 패잔병을 제자로 삼아 검술을 전수해 준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10년 동안이나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도 제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짐작하지 못했는가? 작자는 이런 의문에 대해 자신의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여 해답을 찾아 보려 한다.

검사(劔師)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그의 은둔자적 성향 때문이었다. 세속의 번다한 삶을 싫어하여 외진 산속이나 바닷가에 숨어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검사(劔師)도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다. 검사(劔師)로 하여금 은둔자의 삶을 살게 한 데는 불가피한 외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신분상의 제약을 가졌거나, 자기 재능을 알아주는 지우(知遇)를 만나지 못했거나 할 수도 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팔도 명산을 두루 다니면서 달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칼춤을 추면서 바윗돌을 자르고 큰 소나무를 베어서 노여움을 풀었다고 한다. 그가 풀고자 한 노여움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차별과 멸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검사(劔師)가 뛰어난 검술을 가지고서도 나라의 위급(危急)을 구하러

나오지 않은 것은 조선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작자는 남이(南怡)와 김덕령(金德齡) 같은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나라의 위급을 구하는 대공(大功)을 세우고도 역적으로 몰려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⁶⁾ 임진왜란 당시 조정의 무능과 부패는 전란을 초래한 원인이었으며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 구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임진왜란을 천수(天數)로 보고 이를 순수(順受)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⁷⁾ 이는 재난 극복에 참여하지 않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검사(劔師)의 행위 가운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두 일본 검객에 대한 태도이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3천 명의 왜군을 처치한 것이 개인적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침략군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살려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검사(劔師)의 고의적 선택이었다.

그는 마침내 칼을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너희 무리 3천 명 중에 죽이지 않은 것은 너희 두 사람 뿐이다. 너희는 비록 오랑캐이고 나의 원수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니 내 어찌 차마 다 죽일 수야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其人遂按劔而呼 若屬三千 其不殺 若

6) 남이는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으나 유자광의 모함을 받아 주살(誅殺) 되었으며, 김덕령은 임진왜란 때 권율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군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으나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신경행의 모함을 받아 장살(杖殺)되었다.

7) ‘유치숙(柳痴叔) 이야기’에서 유성룡의 숙부 치숙은 일본인 첩자에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는 것은 천수로 정해진 것이며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하늘을 거스르고자 하지 않는다(我國兵火乃是天數所定 難容人力 吾不欲逆天.)’ 라고 하여 재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역천이라 했다. 동고(東皐) 이준경(李俊慶) 역시 임진왜란이 일어날 줄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천수(天數)라 하여 발설하지 않고 겸중에게 부탁하여 자기 가족을 대피시키는 계획만 세우고 세상을 떠났다.

二人已 若雖夷而讐我 亦人已 吾不忍盡之矣 若能順我乎)

전쟁 중에 사로잡은 적군을 살려주는 데는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함께 살고자 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검승전>과 동일한 소재를 다룬 <맹감사>에서는 조선 선비가 일본 군사 셋을 살려주고 제자로 삼아 검술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다.

머리가 깨어지고 사지가 부러져 죽은 자가 다섯이요 남은 자가 셋이었다. 땅에 엎디어 살기를 비니 그 선비가 말하기를 ‘너희가 과연 성심으로 귀복하려 하면 사생간 나를 따르겠느냐?’ 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을 가리켜 맹서하니 그 선비가 우리 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르기를 “... 내가 너희에게 검술을 가르쳐 줄 터인데 만일 왜병이 침입해 오면 내가 너희를 거느리고 군사를 일으켜 대마도를 지켜 적병을 막을 것이다.”(頭破肢折 死者五人 只餘三人 遂皆伏地乞生 士人曰 汝果誠心歸服 能死生相隨否 三人稽顙輸誠 指天爲誓 士人領歸其家 謂三人曰 … 吾當教以劍術 若倭兵來 則吾可領汝輩起兵 往守馬島 足遏賊兵)

검사(劍師)가 일본 군사를 살려 둔 이유는 그들의 힘을 빌려 뒷날 일본이 침략해 올 때 그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였다고 밝힌다. <검승전>에서는 적군 포로를 살려주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도 인건이기 때문’에 차마 다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모호한 이유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함께 생활하면서 검술을 전수(傳授)할 제자가 필요했다면 조선인 중에서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위험이 상존하는 왜인들을 제자로 삼았다가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죽음을 당했다.

검사(劍師)는 자기가 살려 준 일본인 제자들이 언젠가는 자기를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죽이지 않

고 곁에 끼고 산 것은 그들이 은혜를 이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목숨을 살려 주고 검술을 가르치면서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설령 자신을 배반하여 위해를 가하려 들더라도 검사(劔師)는 자신의 능히 그들을 제압하여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을 가졌을 수도 있다. 〈맹감사〉에 나오는 작가와 일본 승려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정을 알아볼 수 있다. 8)

맹공이 듣고 나서 탄식하면서 묻기를, “스승의 밝은 식견과 신비한 용맹으로 어찌 두 사람이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죽임을 당했던가요?” 하니 승려가 대답했다. “우리 스승님이 어찌 두 사람의 못된 놈들인 줄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재주를 아껴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힘을 얻어 쓸까 생각했던 것이고, 또 스승님의 지혜로써 능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孟公聽畢 不勝感歎曰 以尊師之明識神勇 乃不知兩人者懷不利之心 而終至見害何也 僧曰 吾師豈不知兩人之非吉人 而愛其才 欲以深恩得其死力 且其智 足以制伏也) (〈孟監司東岳聞奇事〉)

〈검승전〉의 작자는 이런 추측으로도 검사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가 사람을 보는 안목(眼目)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검사(劔師)는 두 왜인과 십수 년을 함께 거처했으면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하나는 적이 되고 하나는 아들이 될 줄을 알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곁에 끼고 다니다가 마침내 자기가 가르친 검술로 죽음을 자초했으니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는 밝았으나 사람을 알아보는 데

8) 孟公聽畢 不勝感歎曰 以尊師之明識神勇 乃不知兩人者懷不利之心 而終至見害何也 僧曰 吾師豈不知兩人之非吉人 而愛其才 欲以深恩得其死力 且其智 足以制伏也 (〈孟監司東岳聞奇事〉)

는 어두웠다.(劔師與二倭 處十數年 亦可以知心術矣 一爲賊一爲子
而肘腋之 卒以其道授賊自狀 明於保身 闇於知人)

검승(劔僧)은 〈검승전(劔僧傳)〉의 서술자이면서 중심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 5만 명의 출중한 검객 가운데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된 3천 명 중에 한 명이었다. 검사(劔師)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감에 투철하고 검술에 자신을 가진 일본 침략군 선발대의 일원이었다. 검사(劔師)를 만나면서 그의 운명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동료 검객 3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기네 검술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치욕스럽게도 그는 적국 검객의 동정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

그는 검사(劔師)로부터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내키지 않으면서도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사(劔師)와 함께 지내는 사이에 그의 자세는 불가피한 복종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뀌게 된다. 자신들에 대한 검사(劔師)의 인간적 배려에 감복하여 그를 심복(心服)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스승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삭이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스승의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취한 행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검왜(劔倭)가 스승을 살해하고 함께 도주하자고 했을 때 그는 망설임없이 그를 죽여 스승의 원수를 갚고 은혜에 보답했다. 그 뒤로 40여 년 동안 그는 스승의 기일을 당하면 목이 잠기도록 통곡하며 스승을 추모하는 제를 지내고 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일본인 포로가 아니고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이 된 것이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운후한 풍습을 보고 투항하여 귀화(歸化)한 일본인 사야가를 연상하게 한다.

검왜(劔倭)는 검승(劔僧)과 함께 조선으로 나와서 죽는 순간까지 생활을 함께 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삶과 생각은 검승과 일정 부분 공통점을 가진다. 〈검승전〉에서 검왜의 모습은 극히 단편적으로 소

개되어 있으나 그의 역할은 검사(劔師)와 검승(劔僧)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는 애초에 검사(劔師)의 위세에 놀려 항복을 하고 순종을 맹서했지만, 자기 동족 삼천 명을 죽인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검사(劔師)에 대한 원한을 극복하고 그를 스승으로 받든 검승과는 달리, 검왜는 검사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삭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검왜가 아무런 갈등도 없이 검사를 미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를 살려주고 인간적 사랑을 베풀어 준 검사(劔師)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검승(劔僧)과 다른 선택을 했다. 은인이자 스승인 검사(劔師)를 죽임으로써 그의 손에 죽은 동료들을 위한 복수를 결행한 것이다.

2) 작중인물의 상관관계와 갈등

〈검승전〉에 등장하는 검사(劔師), 검승(劔僧), 검왜(劔倭)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애증(愛憎)의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검사와 일본인 제자 간에는 적대관계와 사제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인 제자 두 사람 사이에도 혈연적 동질성과 이념적 이질성이 함께 존재한다.

검사(劔師)는 일본인 제자들을 적대관계로 만났다. 일본인 선발대는 아무런 까닭도 없이 길에서 만난 노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려 했고, 이에 맞서 검사는 그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려 했던 것이다.

바닷가 언덕에 백여 길이나 되는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웬 사람 하나가 도롱이를 걸치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발대 군사들이 고향을 지르며 그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그가 칼을 휘두르니 총알이 칼날에 맞아 분분히 떨어지곤 했지요. 왜인들은 더욱 분개하여 뺨 둘러서서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서 새처럼 날아 내려오며 칼을 휘둘러 왜인들의 어깨를 지나

치니 마치 풀을 베는 듯했지요. 이에 칼 잘쓰는 왜인들 삼천 명 중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이는 저와 또 한 왜인이 있었을 뿐이었지요. (海岸有石 陡立百餘尋 見一人 雨笠衣 坐其上 別部譟而仰發銃 其人劒揮之 丸輒紛紛雨落 倭益忿 環不去 已而其人騰而鳥下 飛劒往來人肩 如草薙 於是 倭能劒者三千 不殺獨老僧若一倭已)

이 장면을 보면 검사는 일본 선발대에 대해 강한 적개심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조선에 침입하여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을 살상한 침략자들이었다. 검사(劒師)가 그들 두 사람을 살려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검사(劒師)가 일본인 선발대에 대해 장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살아남은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들의 충성 서약을 확인하고는 목숨을 살려 주고,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생활하면서 검술을 전수해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검사(劒師)는 생명의 은인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함께 생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일본 패잔병임이 밝혀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검사(劒師)는 이런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죽음의 위험을 피해 산중(山中)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검사(劒師)는 일본인 제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해소하고 인간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제자들을 감복시켜 10년 동안 사제(師弟)·부자(父子)의 정을 나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제자 가운데 하나는 심복(心腹)했지만 다른 하나는 끝내 심복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劒師)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충정을 이해해 주는 한 명의 제자가 자기 동료들을 죽여 스승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검사(劒

師)에게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검승(劍僧)과 검왜(劍倭)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그들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어려운 관문을 거쳐 조선 침략의 선발대에 뽑혔다. 동료 3천 명이 몰살당할 때도 그들 두 사람만이 살아 남았다. 그들은 위협이 가득한 적국(敵國)에서 살아남아 언젠가는 다시 고국(故國)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야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 사이의 동질성과 연대의식은 공고할 수밖에 없다. 그들 두 사람은 스승인 검사(劍師)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동창 관계에 있다. 그들은 검사(劍師)를 스승으로 받들며 함께 검술을 전수받았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兄弟의 관계로 10년 동안을 함께 지냈다.

검승(劍僧)과 검왜(劍倭)가 외면적으로는 강한 동질성을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검사(劍師)에 대한 태도에서 그들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 같다.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고 검사(劍師)에 대해 진심으로 심복(心腹)하는 검승(劍僧)의 태도에 대해 검왜(劍倭)는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폭발했다. 검왜(劍倭)가 스승을 살해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검승이 그의 요구를 뿌리치고 그를 살해하는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검승과 검왜의 다른 인간상과 갈등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십년이 지난 어느 날 나들이에 나서면서 스승이 몸을 굽혀서 들메 끈을 매는 순간에 같이 있던 왜인이 벼란간 뒤에서 칼을 뽑아 스승의 머리를 베고 저를 돌아보며 “이 사람은 우리 원수가 아닌가. 오늘에야 그 원한을 갚았네. 우리 둘은 저 사잇길을 찾아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스승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을 내어 칼을 뽑아 그 왜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지요. (後十年 嘗出游 其人類而結罪係 一倭忽乘後拔劍 斷其頭 顧老僧曰 夫匪吾讐乎 今日得反之矣 吾二人 盍間行返諸日本 老僧 目見師遇害 狼發劍 亦立斷其倭頭)

우직하고 열혈적 성격의 검왜(劔倭)는 동족을 대량으로 살해한 검사(劔師)를 끝내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검사(劔師)에 대한 은원(恩怨)의 감정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다. 그에게 증오심과 적개심만 있었다면 좀더 일찍 검사(劔師)를 처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결심을 실행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은 그의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 준다. 그가 스승을 살해한 데는 그에 대한 증오심 이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욕망이 작용했다. 검왜(劔倭)는 불안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한시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스승의 손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것은 스승을 죽임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검왜(劔倭)는 동족인 검승(劔僧)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원수인 검사(劔師)를 스승으로 심복(心腹)하는 검승(劔僧)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승을 살해할 계획을 꾸미면서도 검승과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을 살해하고 나서야 자신이 동족을 위해 복수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함께 일본으로 탈출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검승이 스승을 죽이는 데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은 추인(追認)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검승이 자기를 죽일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승(劔僧)은 검왜(劔倭)와 다른 자세로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검사(劔師)에 대해 적개심을 삭이지 못한 검왜와는 달리 검승은

검사에 대한 적개심을 접고 그를 스승으로 받들며 심복(心腹)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승을 살해한 검왜를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말았다.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검승은 검왜가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가 검왜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 적대감만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가 검왜를 죽이고 난 뒤에 취한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칼 잘 쓰는 왜인 3천명이 조선에 왔다가 다 죽고 우리 둘만 남았는데 그나마도 내가 죽었으니 하늘 아래 나 혼자만 남았구나. 바다 건너 만리 타국에 살자니 두렵기만 한데 혼자 살아서 무엇하랴.’ 하고 크게 울고 스스로 죽으려 하다가 또 생각하기를 ‘나는 일본 사람이니 동해에 가서 죽자.’ 하고 동해로 달려가 물에 뛰어들었지요.
(又劔倭東來三千 吾兩倭在爾 吾殺其一倭 顧天下一身已 日出限漲海萬里 居異國 又多畏 吾獨生何爲 遂大哭 欲自殺 又念 我日本人也 投東澗而死 東走澗自殺)

검승(劔僧)은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는 다했지만, 조국과 동족에 대한 의리를 배반한 셈이 되었다. 그가 일본과 연해 있는 동해 바다를 찾아 투신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승에 대한 의리 때문에 검왜(劔倭)를 죽이기는 했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가 조선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굳이 승려의 길을 택한 것은 신분을 위장하는 방편이었을 것이지만, 자신이 지은 업장(業障)을 소멸하기 위한 참회의 고행이기도 했다. 해마다 스승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는 검사(劔師)에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동포 검객들과 자기 손으로 죽인 동료 검객에 대한 명복도 함께 빌었을 것이다.

4. 갈등의 극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

1) 전쟁과 인간성의 파괴

〈김승전〉은 전쟁문학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전쟁문학에 흔히 드러나는 적대감이나 민족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전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참상(慘狀)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 감정을 앞세워 현실성 없는 복수심을 부추기는 〈임진록(壬辰錄)〉 계열의 작품들과는 달리⁹⁾ 담담하고 냉정한 자세로 전쟁이 남긴 모진 자취를 증언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비극으로만 그리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고 있다.

〈김승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惡行을 저지르고 서로 원수가 되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일본군 선발대 3천 명의 죽음은 전쟁의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침략군으로 들어와서 한동안 승승장구하며 무고한 조선 백성을 살상하고, 조선 국토를 유린했다. 그들이 검사(劒師)를 죽이려 한 것은 다분히 장난기 어린 행동이었다. 그들이 가는 길가의 높은 바위에 도롱이를 쓰고 앉아 있는 노인을 보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조총을 쏘면서 죽이려 했다. 모두들 자기네를 무서워하며 달아나는데, 노인이 달아나지도 않고 바위 위에 앉아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한 것이다. 그들의 장난기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들 모두가 검사의 칼에 무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은 전쟁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치기어린 장난으로 시작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9) 〈임진록〉 계열의 작품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데, 일본에 강화 사절로 간 사명당이 강화의 조건으로 해마다 일본인의 인피(人皮) 수백 장과 고환(辜丸) 여러 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전쟁이다.

검사(劍師)는 전쟁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다. 세상의 번다함이 싫어 은둔의 삶을 택했던 그는 전쟁이 없었다면 산중을 떠돌면서 은둔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전란을 당하여 나라의 위급을 구하러 나서지는 않았던 그였지만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려들게 되었다. 일본 침략군 선발대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와 앉았다가 그들의 공격을 빌미로 본의 아니게 부대원 3천 명을 일시에 참살하는 악업(惡業)을 지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은 전쟁에 참여하여 자신이 저지른 악업에 대한 과보(果報)였다.

검승(劍僧)과 검왜(劍倭)도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침략군의 일원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탓할 일은 아니다. 그것이 침략전쟁이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항거할 힘은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이 동해안 여러 지역을 유린하고 인명을 살상한 것은 전쟁의 속성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은 전쟁에서 싹튼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검왜(劍倭)는 스승을 죽인 패륜아로 그려지고 있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용감하고 의로운 인물로 평가받을 인물이다. 그의 행위는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은 동족에 대한 의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가 스승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은 우리 원수가 아닌가. 오늘에야 그 원한을 갚았다(夫匪吾讐乎 今日得反之矣)’ 라고 한 것은 그의 살해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 준다. 그는 나라를 위하고 동족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한다고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스승을 죽인 패륜아가 되어 동족 친구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했다.

검승(劍僧) 역시 전쟁의 피해지이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검사(劍師)의 온정으로 죽음을 면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 스승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패잔병 포로에서 투항한 귀화인의 삶을 살고

자 했다. 검왜(劍倭)가 스승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그는 즉시 칼을 휘둘러 검왜를 죽여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를 다했다. 그리하여 그는 <검승전>의 작자로부터 ‘오랑캐이지만 의리를 이는 기남자(奇男子)’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는 또 다른 패륜아가 되고 조국을 배반한 매국노가 된다. 무참하게 살해당한 동족의 원한을 돌아보지 않고 원수의 제자가 되었다. 가장 친근하게 지내야 할 동족 친구와 갈등을 빚고 동족을 위해 복수한 그를 죽임으로써 다시 한번 조국을 배반하고 말았다. 그는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지만, 죽지 못하고 불안한 도피 생활을 하게 된다.

전쟁은 <검승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내몰았다. 침략군 3천명은 검사(劍師)에 손에 몰살되었으며, 그들을 죽인 검사는 자신이 살려준 검왜(劍倭)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 동족을 위해 검사를 죽인 검왜(劍倭)는 자신의 동족인 검승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검왜를 죽인 검승(劍僧)은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부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다. 모두가 패자이고 피해자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속성이고 본질임을 <검승전>은 말해 준다.

<검승전>은 선악(善惡)의 가치관(價値觀)을 혼란스럽게 한다. 검사(劍師)의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도 설득력있게 이해하기 힘들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일본군에게 잔인한 모습을 보인 그가 유독 두 사람에게만 인간적 연민을 보이고 온정을 베푸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힘들다. 적군의 정예 부대를 섬멸한 그의 행위와 적군 패잔병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는 행위 사이에는 납득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

검승과 검왜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행위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중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들의 행위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검승(劍僧)은 스승에게 제자의 도리를 다한 의인이지만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동족을 살해한 악인이다. 검왜(劍倭)는 스승을 살해한

패륜아이지만 자기 나라와 동족을 위해 복수를 결행한 의인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 하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선행이 최악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기도 한다.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실종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폐해의 하나이다.

2) 경계의 극복과 화합의 실험

〈검승전〉에서 말해 주는 것이 전쟁의 부정적인 면만은 아니다. 전쟁에는 부정적인 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전해 주는 것이 전쟁 문학이다. 〈검승전〉의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민족감정을 촉발하지 않는다. 전쟁의 와중에서 적대자 사이에 맺어진 인간적 만남과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검사(劔師)는 적군을 섬멸하면서 두 사람을 살려 두어 인간애를 실천하는 실험을 했다. 그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3천 명을 몰살하면서 두 사람을 남겨둔 것은 인간적 본성의 발로였다. 검사(劔師)는 원수에 대한 증오심에서 왜군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 나가다가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문득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검사(劔師)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비록 오랑캐이고 나에게서는 원수이지만 너희도 사람이니 내가 차마 다 죽일 수가 없구나(若雖夷而讐我 亦人已 豈不忍盡之矣).’ 라고 한 것은 자신의 가혹한 살상 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말이다. 검사(劔師)는 증오심을 누르고 그들을 아들처럼 보살피며 검술을 가르쳤다. 언젠가는 해를 입을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원수를 제자로 삼아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그는 민족애(民族愛)에 우선하는 인간애(人間愛)를 실천한 것이다.

검사(劔師)의 실험은 그의 죽음으로 중단되어 미완으로 머물렀지만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실험은 절반의 실패였고 또 절반의

성공이었다. 제자들 가운데 배반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스승의 사랑에 감화되어 배반자를 옹정하고 수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며 추모해 주는 자식 같은 제자도 나왔기 때문이다. 작자는 검사(劍師)의 실험에서 겪었던 실패보다 그것이 이룩한 성공에 비중을 둔다. 스승의 뜻을 깨닫지 못한 제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스승의 숭고한 뜻을 깨닫고 심복(心腹)한 제자는 살아 남아 스승의 의로운 행적을 증언하고 있다.

검승은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의 소중한 체험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검승(劍僧)의 체험담(體驗談)은 단순한 회고담(懷古談)이 아니다. 그의 40년 은둔 생활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특이하고 소중한 체험을 누구에게나 전해 주려고 깊은 산중에서 승려로 위장하여 살았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상을 찾지 못하여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대산에 과거 공부하러 온 젊은 선비를 만났던 것이다. 검승(劍僧)은 며칠을 두고 그의 곁에 앉아서 글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람됨을 알아 보았고, 마침내 가슴 속에 묻어 두었던 비밀을 토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고백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것이다.

검승(劍僧)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체험을 토로한 것은 그가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과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를 이야기했다. 아울러 전쟁의 와중에서 적대자 간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만남을 전하고, 그것이 남긴 강렬한 울림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 검사(劍師), 검승(劍僧), 검왜(劍倭)의 공동체적 삶은 전쟁의 상흔을 씻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들의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전쟁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작은 노력,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원수를 용서하고 인간적 화합을 이룬다는 것이 힘들고 내키지 않는 일이지는 하지만, 정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화합의 세계를

열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검승전>의 일본관이라 할 수 있는 『난실만필』의 <劔技>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왜장과 조선인 양자(養子) 사이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검기(劔技)>의 주인공 종실자(宗室子)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죽을 위협에 처했으나 왜장의 배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조선인 포로 수백 명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참이었다. 종실자는 나이가 10여 세로 용모가 준수하였다. 그가 칼을 받게 되었을 때 곁에 있던 한 왜장이 앞으로 뛰어나와 칼을 멈추게 하면서 말하기를 “잠시 멈추시오. 이 아이가 귀엽게 생겼으니 자식이 없는 나에게 주어 자식을 삼게 해 주시오.” 하니 그 일본인이 허락하였다.(以所俘男女數百人 連頸斬折 宗室子年方十餘 容貌娟秀 次將受劔 在傍一將倭 突前挽住其劔曰 且止 此兒可愛 我無子 願丐我爲子 其倭許之) (<劔技>)

왜장은 곱상하고 총명하게 생긴 종실자를 일본으로 데려가서 양자(養子)로 삼아 검술을 가르쳤다. 검술이 어느 경지에 이르자 그를 시켜 자기의 목은 원수를 갚게 했다. 종실자는 왜장의 원수를 제거하여 은혜를 갚고 그의 배려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왜장의 인간적 사랑을 잊지 못하고 평생토록 그의 덕을 추모했다.

그들이 헤어질 때에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차마 놓지 못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 그는 항상 왜장이 자기를 살려준 은덕과 수십 년 길러 준 은혜를 생각하고 왜장이 자기에게 준 쌍검을 몸에 지니고 다녀 애뜻하게 잊지 못하는 정을 표시했다.(臨分抱持涕泣 不忍相捨 既還 ... 常念將倭全活之德 數十年養育之恩 常以所予雙劔 貼

身佩持 以萬戀戀不忘之意) (『蘭室漫筆』, 〈劔技〉)

왜장과 종실지는 전쟁의 와중에서 적대자로 만나 인간적 사랑을 나누었다. 왜장은 적의 포로를 살려 아들로 삼고 검술을 가르쳐 다시 고국으로 돌려 보내 주었다. 종실지는 왜장의 인간적 사랑에 감화되어 그의 원수를 갚아 주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평생 그의 은덕을 기리며 살았다. 종실지는 왜장에 대해 은원(恩怨)의 복합된 감정이 있었다. 적대국의 침략군을 아버지로 섬겨야 하는 입장은 〈검승전〉의 검승과 같았다. 그는 왜장에 대한 원한을 잊고 그에게서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 죽음에 임박하여 종실지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여 이를 전하도록 했다. 이는 전쟁의 와중에서 피어난 인간간의 실현이며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5. 전쟁 체험을 통한 각성과 성찰

전쟁의 체험과 기억을 다룬 전쟁문학은 인간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 준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 포로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검승전〉은 짧고 간결한 서술을 통해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진실을 전해준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전쟁 자체의 배경이나 실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통치자 간의 상충된 이해 관계로 일어나는 전쟁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멸로 몰아간다. 〈검승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죽거나 비참한 말로를 맞는다. 일본군의 정예 부대로 조선에 건너 온 선발대 3천 명은 조선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을 살상했지만 이름없는 조선 검객의 손에 몰살되었다. 그들을 몰살시킨 노인 검객 역시 자신이 살려 준

제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요행히 살아 남은 두명의 일본 검객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마찬가지였다. 한 사람은 동족의 원수를 갚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승을 죽였지만 친구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다른 한 사람은 친구를 죽여 스승의 은혜를 갚았으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었다. 그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패자였다.

〈검승전〉은 전쟁의 부정적 측면을 전하면서도 그 와중에서 이루어진 인간적 교류를 부각시키고 있다. 적개심과 증오심이 팽배한 전쟁 상황에서도 원함과 증오심을 삭이면서 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이 작품이 증언하고 있다. 폐허 속에서 생명의 싹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적 만남과 교류이다. 〈검승전〉의 노인 검객은 그가 살려준 일본인 병사들과 더불어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실험을 시도했던 것이다. 적대자에 대한 원함과 미움을 극복하고 부자형제(父子兄弟)의 삶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함께 노력했다. 그들의 노력은 중도에 미완으로 끝났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이어져서 마침내 공고화한 지역과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교류를 넓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검승전〉의 서술자인 일본인 검객은 폐허와 절망 속에서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 남아 자신이 겪은 전쟁의 비극을 증언하고 아울러 스승과 함께 시도했던 의미있는 실험을 증언하고 있다. 조선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무릅쓰고 적국 침략군에 대해 사랑을 베풀고 인간애를 실현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신에 대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적국의 군사를 제자로 삼아 부자의 정을 나누고자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검객은 이러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끝까지 살아 남은 일본 검객은 스승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비를 만나 그

들의 작지만 숭고한 노력을 길이 전할 것을 당부했다. 그의 바람은 자신들이 실험한 미완의 시도가 이어지고 확산되는 것이었다.

〈검승전〉은 전쟁과 관련해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문학이 해야 할 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감정을 앞세운 서술로 증오심을 노출시키는 통속적 전쟁문학과는 달리 〈검승전〉은 전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고뇌해야 할 과제를 전해주고 있다. 전쟁이 국가와 인종 간의 경계와 차이에서 생긴 갈등의 표출이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길은 경계의 벽을 허물고 인간적 소통과 교류를 확산해 나가는 데 있다. 〈검승전〉은 전쟁의 와중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화해와 화합의 싹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한국 전쟁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진규. 『조선조 포로소설 연구』. 보고서, 2006.
김태준.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신서12, 2005.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소재영. 『임진록』(한국고전문학전집 4). 고려대출판부, 1993.
이가원. 「석북문학연구」. 『동방학지』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149-204.
이채연. 『임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장경남.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학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8): 7-34.
정하영. 「〈劔僧傳〉의 人物型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93-123.

Fictional Depic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Sword-Monk Story (劔僧傳)

Jung, Ha-young
(Ewha Womans University)

Wars have long been important literary subjects. The war depicted in this work dealt with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Korea in terms of its significant and overall influence 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War experiences have been major literary topics throughout pre-modern and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Sword-monk Story, written by Shin Kwang-soo (1712-1775) is a work of war literature that deals with reminiscences by two Japanese survivors of a defeated army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from 1592-1598. The work describes the humane relationship between a Korean sword-monk and two Japanese soldiers who once fought against the monk in the war. The characters attempt to overcome hostility, establish amity, and reach peaceful harmony. Despite their attempts, however, they fail to overcome all of their conflicts, and the residual conflicts lead to a tragic result in the end. The writer, Shin, describes how war can destroy people's lives and their divine character as well. Shin tells of the Korean sword master who makes an attempt to establish mutual

understanding beyond national barriers between himself and the Japanese soldiers, who agree to serve him as master and live humane lives. The story can be understood as a significant work of war literature in that mutual understanding and humane affection are depicted as ways of overcoming the calamity of war and moving forward to a better future.

주제어: 전쟁 체험(war experience), 전쟁 문학(war literature), 임진왜란 (Japanese invasion), 검승(sword-monk), 소통과 교류(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change)

논문제출일: 2011. 08. 15
심사완료일: 2011. 09. 10
게재확정일: 2011. 09. 15